

2. 나는 누구인가?

〈같이 읽을 말씀〉

창세기 1:26-28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고 믿음의 성장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 주제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신앙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주제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관심을 갖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더 관심 있게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인간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기차길 같은 우리의 삶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성찰이란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는 행위(성찰)가 없이 성실하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성실한 악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의 맨 앞에서 기차가 달리는 바로 앞의 철길만 바라본다면 기차는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굽었어도 그렇게 많이 굽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온 길을 지도에서 보면 꼬불꼬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똑바로 가는 것 같고, 별로 굽은 것 같지 않은데 지도를 보면서 내가 달려온 길을 뒤돌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비로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며, 또 많은 허물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나라는 존재)이란 과연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따라서 가 봅시다.

1. 먼저 다음의 성경 구절을 적어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6-28

- 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 ②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창세기 2:7절을 써 봅시다.

③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_____

④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생명을 주셨나요? _____

2.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상’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세워 놓은 상(像)’ 혹은 ‘신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이나 통치자의 상(像)이 그 상의 장본인을 대리하듯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의 모양과 같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것이기도 하도, 자유와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자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는 달리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사람을 왜 좀 더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지 않고 흔하고 보잘 것 없는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흙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은 특별하고도 고귀한 존재인 것과 동시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흙덩어리 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3:1-6절의 말씀을 읽고 다음의 물음에 대답해 봅시다.

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3:3)

②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3:3)

④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5)

5. 창세기 3:1-6절의 말씀은 ‘죄’가 어떻게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3:1-6절의 말씀을 읽고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1-6절의 말씀을 보면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거나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도덕하거나 악한 일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말을 신약성경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표적에서 벗어난 창’ 혹은 ‘표적을 이탈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하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된 본성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6. 이렇게 시작된 죄는 점점 확산되고 그 정도가 심각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심각해 졌는지 다음의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6:5,6절을 써 봅시다.

7.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창세기 6:7절을 써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시대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23절을 써 봅시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지으면 죄 값으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인이 가는 길 중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샅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이 된 자는 어느 과정에 있든지, 어느 시점에 있든지 모든 과정들이 사망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1절을 써 봅시다.

9.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마태복음 21:33-43절을 읽고 다음의 물음에 대답해 봅시다.

①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_____

②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_____

③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_____

④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_____

하나님께서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를 지적하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더 커져 갔고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0. 이사야 53:6절을 써 봅시다.

11.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간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16절을 써 봅시다.

12.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는 ‘나 자신에 대한 현실인식’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11-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 ①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흥년이 들어서 돼지를 치면서 비로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5:21절을 써 봅시다.

- ②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누가복음 15:22-24절을 써봅시다.

누가복음15:11-2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현실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아버지(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있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3.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고린도후서 5:17절을 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였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흠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흠덩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임무를 주셨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한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용서 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기도〉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녀로서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